

영아보육과정의 연구동향 및 운영실태 관련 연구 분석: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연구를 바탕으로

Research Analysis Related to Research Trends and the Operation Status of Childcare Curriculum for 0 to 2 Year-Olds: Based on Research After the 3r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김세진¹

Sejin Kim¹

ABSTRACT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research in relation to childcare curriculum for 0 to 2 year-olds, and then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results of precedent research about the status of the operation of Childcare Curriculum.

Methods: The analytic data utilized in this research contains a total of 45 research results about childcare curriculum for 0 to 2 year-olds.

Results: First, the research methods were focused on quantitative research. Regarding research topics, the status of the operation of Childcare Curriculum, and contents and programs of Childcare Curriculum received high attention. Second, while, childcare teachers showed an awareness of the Childcare Curriculum, they made few efforts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it in depth. It was reported that a lack of multiple support systems would serve as an obstacle to the operation of Childcare Curriculum.

Conclusion/Implications: There is a need for childcare centers, academic circles and the government to pay an even greater deal of attention to the childcare curriculum for 0 to 2 year-olds. In addition, structural and policy support is required, such as revitalizing case-based teacher training, lowering the ratio of teachers to children,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for infant teachers.

key words research trends, childcare curriculum for 0 to 2 year-olds,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operation of the childcare curriculum

¹ 제1저자(교신저자)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생
(e-mail : vvvvv1007@naver.com)

I. 서론

지속되는 핵가족화와 가족 기능의 변화, 여성 취업의 증가,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 등으로 유아들뿐 아니라 영아들도 어린 시기부터 보육기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유주연, 이승연, 2015), 이로 인해 영아의 양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이승연 등, 2015).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2012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2세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면서 영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0-2세 보육아동은 총 700,890명이었으며, 주민등록 인구 대비 0세는 43.9%, 1세는 86.4%, 2세의 경우 96.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월~금 주 5일 이상 상시이용이 대부분으로 간헐적 이용자가 없고, 어린이집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등·하원시간 포함)은 7.5시간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영아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원 등, 2018). 이처럼 어린이집은 생의 초기 환경으로서 가정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아보육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의 영아보육은 연령 특성상 가르침 보다 보살핌이 강조되어 왔고(김지현, 양옥승, 2009), 영아는 발달적으로 미숙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져 단순한 보호차원에서의 ‘돌봄’을 위주로 보육이 이루어졌다(김영실, 신애선, 2014). 그러나 영아를 신체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은 영아의 자조적 기술을 키워주기 위한 가르침과 병행되고 있으며, 교사의 가르침 또한 정서적인 보살핌을 위한 애정적 행동이 바탕이 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지현, 양옥승, 2009). 즉, 영아보육의 질은 어떠한 보육환경에서 어떻게 준비된 보육교사가 어떤 보육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영아들과 하루 일과를 전개해 나가는가에 의해 결정된다(최목화, 이미영, 나중혜, 2011). 따라서 영아보육과 관련한 보편적 보육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제시하는 것은 모든 영아가 일정한 질적 수준이 보장된 보육을 어린이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이미화, 정주영, 엄지원, 2014).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적절한 보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이며(Dodge, 1995),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은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균등한 질을 확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ECD, 2012).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 보육과정으로서 2007년 표준보육과정을 제정·공포하였고, 2011년 5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기존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하여 2012년에는 0-4세 대상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그리고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의 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을 포함한 제3차 표준보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러한 보육과정 변화에 따라 국가 차원으로 제시한 내용이 어린이집에서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대두되었다. 이에 2007년 표준보육과정 보급 이전에는 대부분 표준보육과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표준보육과정 보급 이후에는 보육현장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가 등 표준보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이영환, 서현아, 윤정진, 2013). 특히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통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연구가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연구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김미애, 나인선, 2018; 김민희, 2015), 누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동향 분석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김미애, 나인선, 2018; 김민희,

2015; 장상옥, 2017; 정정희, 이효림, 2017). 반면 유아교육·보육과정 대비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13.3~)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는 영아보육과정이 어린이집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 자료를 보급('13.2~)하고, 중앙 및 지역 내 보육정보센터(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교사연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과 책임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아기 보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 2013). 영아기는 인간 발달의 토대가 마련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정책적으로도 공적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영아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2017)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17년 기준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으로 밝혀 영아보육에 투입되는 공공재정 역시 증가될 것이므로,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 확대와 현장에서의 질적 운영은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특정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과 과제를 조망하는 일은 필수적이고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임을 감안할 때(이승연 등, 2015),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학계와 현장의 관심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 성과는 결국 현장에서의 질적 운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보육활동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의미를 잃게 되며(김지영, 김동례, 2016), 실제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미화 등, 2014). 따라서 2013년 3월 제3차 표준보육과정 이후 2020년 9월부터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 내용과 결과를 분석·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보육과정과 관련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전반적인 이해 및 운영 수준과 운영 시 어려움, 요구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영아보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의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관련 연구들의 연구결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의 선정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 자료는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물 총 45편이다. RISS, DBpia에 소장된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중에서 ‘표준보육과정’, ‘영아보육과정’, ‘보육과정’을 키워드로 연구물을 검색한 뒤,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2013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발간된 논문과 학술지들을 수집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가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정·게재되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학술지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위논문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영아보육과정’이란 용어는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중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 자료 선정 시에는 반드시 연구내용에 있어서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다루었는지를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명에 ‘보육과정’ 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보육과정을 어린이집의 모든 활동 및 교수학습, 기관 운영방식 등 폭넓은 의미로 정의한 연구물(예: 교사-영아 상호작용 활동, 기관 운영시간, 안전한 보육환경 등),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다룬 연구이지만 영아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연구물, 설문조사 등에서 연구대상 변인을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를 구분하지 않아 영아보육과정 관련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연구물의 경우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 준거 및 방법

1)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의 연구동향

분석 자료로 선정된 연구물 총 45편을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준거로서, 3-5세 누리과정(유아교육과정)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민희(2015), 김미애와 나인선(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방법의 경향과 연구주체의 경향으로 나누어 각 기준의 유목에 따라 구분하고 분석하였다(표 1).

먼저 연구방법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질적연구, 양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질적연구는 심층면담이나 관찰 내용을 유목화하고 분석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추출하여 의미를 찾는 연구이며, 양적연구는 최종적인 연구결과의 진술을 통계 처리하여 수량화한 연구, 문헌연구는 연구문제와 관련 있는 다수의 문헌을 비교·분석하고 평가한 연구이다(김영실, 신애선, 2014). 특히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선정된 연구물에는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연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기준에 따라 수량화하여 제시한 경우, 김민희(2015)의 분석 준거를 참고하여 이를 내용(contents)분석으로 분류하고 이를 양적연구 범주로 포함하였다. 또한 보육과정 내용을 유아·초등·해외교육과정 등 다른 교육과정들과 비교·분석하고 평가하는 형태의 연구방법을 취한 경우, 이를 문헌연구 범주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병행한 논문의 경우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아보육과정 분석,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 교수법·프로그램의 효과성, 척도 개발, 이론고찰, 운영실태로 구분하였다. 영아보육과정과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을 별도 범주로 구분한 것은 3-5세 누리과정 연구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교사용지도서’가 주요 키워드였고(정정희, 이효림, 2017), 누리과정 관련 자료들의 내용 구성을 분석해본 것들이 주를 이루었던 점(김미애, 나인선, 2018; 김민희, 2015)을 고려한 것이다. 연구주제 범주를 구분할 때에는 한 논문이 하나의 주제만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예: 남미경, 김인숙(2017).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자연친화활동에 대한 동향분석과 보육교사의 인식조사), 이승연 등(2015)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하나의 주제일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2점, 두 개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두드러진 2개의 범주에 각 1점씩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분석 최종 단계에서 이를 1/2로 나누어 1편당 총 1점으로 계산되도록 하였다.

표 1.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동향 분석 준거

분석 준거	범주	세부 내용
연구방법	질적연구	면담, 관찰
	양적연구	조사, 실험, 척도 타당화, 내용분석
	문헌연구	다수의 문헌고찰
	혼합연구	질적연구, 양적연구, 문헌연구의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병행
연구주제	영아보육과정 분석	구성체계 및 내용의 적절성, 연계성 분석 등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분석 등
	교수법·프로그램의 효과성	영아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
	척도 개발	영아 관찰 척도, 활동 평가 척도 개발 등
	이론고찰	보육과정의 발전 현황(역사), 발전방안에 대한 담론 등
	운영실태	보육교사의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실행 및 적용, 장애요인·지원 관련 요구사항 조사 등

2)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자료는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동향 분석 준거 중 연구주제에 대한 분류로서 ‘운영실태’ 범주에 포함된 연구물이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으로 구분·정리하여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준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준거

분석 준거	세부 내용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	
영아보육과정의 인식 및 이해	영아보육과정 보급 사항과 내용에 대한 보육교사의 관심과 인식, 영아보육과정의 이해 정도 등
영아보육과정의 실행 및 적용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아보육과정의 편성, 운영 실행 수준 및 정도 등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	영아보육과정 운영 시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자료집의 활용에 대한 사항 등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	보육교사가 느끼는 영아보육과정 적용 시 어려운 점·애로사항, 영아보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등

Ⅲ. 결과 및 해석

1.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의 연구동향

2013년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는 총 45편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도별 연구물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가장 많은 연구가 실시된 해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다음 해인 2014년(24.4%)으로 2013년(8.9%)과 비교하여 약 2.7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5년(11.1%)에 감소하였다가 2016년(15.6%)에 다시 일부 증가한 뒤, 2016년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연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15.6%)에 다시 증가된 양상을 보였으나 2020년(6.7%)에 재감소하였다.

표 3.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물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연구물	4	11	5	7	4	4	7	3	45
현황	(8.9)	(24.4)	(11.1)	(15.6)	(8.9)	(8.9)	(15.6)	(6.7)	(100.0)

1) 연구방법에 따른 동향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77.8%)가 가장 많았다(표 4). 다음으로 문헌연구(13.3%), 혼합연구(6.7%), 질적연구(2.2%)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혼합연구의 경우 문헌연구 및 양적연구를 사용한 연구물이 1개,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를 사용한 연구물이 2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연구로서 연구

방법이 조사, 실험, 보육과정·보육프로그램 내용 분석에 매우 치중된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비교하여 질적연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미약한 수준이었다.

표 4. 연구방법에 따른 동향

		분석 준거	계(%)		
연구방법		질적연구	1(2.2)		
		양적연구	35(77.8)		
		문헌연구	6(13.3)		
	혼합연구	문헌연구 및 양적연구	1	3(6.7)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	2		
		계	45(100.0)		

2) 연구주제에 따른 동향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의 주제에 따른 동향은 아래 표 5와 같다. 연구주제는 운영실태와 관련된 연구(33.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25.6%), 교수법·프로그램의 효과성(11.1%), 척도 개발(13.3%), 영아보육과정 분석(11.1%), 이론고찰(5.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운영실태와 관련된 연구로서 현장에서 실천되는 보육과정의 원활한 적용 및 활용에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25.6%)과 영아보육과정 분석(11.1%) 연구를 합산하면 총 36.7%로 운영실태(33.3%) 관련 연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육과정 운영 뿐 아니라 영아보육과정 관련 내용 및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연구주제에 따른 동향

		분석 준거	분류된 연구물 수 ¹⁾	코딩 점수 ²⁾	계(%) ³⁾
연구주제		영아보육과정 분석	7	10	5(11.1)
		영아보육프로그램 분석	13	23	11.5(25.6)
		교수법·프로그램의 효과성	5	10	5(11.1)
		척도 개발	6	12	6(13.3)
		이론고찰	4	5	2.5(5.6)
		운영실태	17	30	15(33.3)
		계	-	90	45(100.0)

1) 연구주제 범주를 구분할 때, 한 논문이 하나의 주제만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범주
 2) 연구가 하나의 주제일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2점, 두 개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두드러진 2개의 범주에 각 1점씩 점수를 부여
 3) 분석 최종 단계에서 이를 1/2로 나누어 1편당 총 1점으로 계산

2.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선정된 총 45편의 연구물 중 연구주제가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분류된 17편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17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으로 구분·정리하여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 17편을 구체적인 분석 기준(표 2)에 따라 분류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연구물 분류 시에는 분석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등을 실시하고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였다. 한 연구에서 여러 준거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구 내용으로 다루었을 때에는 각 준거에 모두 포함하여 합산하였으므로, 표 6에 기재된 연구물 수량은 중복된 값이다.

표 6.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관련 연구물 현황

분석 준거	분류된 연구물 수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	
영아보육과정의 인식 및 이해	10
영아보육과정의 실행 및 적용	13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	6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	8

1)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

영아보육과정의 이해와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연구주제로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분류된 연구물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영아보육과정 실행 및 적용,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과 관련한 연구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아보육과정의 인식 및 이해

영아보육과정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나 이해와 관련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이미화 등(2013)의 연구에서 영아교사 및 원장의 67%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이어 2014년 연구에서도 영아반 교사 총 624명 중 84.6%가 표준보육과정을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이미화 등, 2014). 김지영과 김동례(2016) 또한 영아교사는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에 대한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한 김현주(2016)의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 영아반 교사는 평균 2.98인

반면 유아반 교사는 평균 3.09로 유아반 교사의 관심과 이해정도가 근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2014)의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평균 4.15였으나, ‘표준보육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서 평균 3.89, ‘영역별 구체적 보육내용, 교사지침에 대한 이해정도’는 평균 3.62로 나타나 유아반 교사들이 제3차 표준보육과정 존재는 인식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거나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주현미(2014)의 연구에서도 리커트식 5점 척도에서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평균 3.86이었으나 표준보육과정과 구체적 보육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서는 평균이 각 3.39로 나타났다. 리커트식 척도로 표준보육과정의 항목별 이해 정도를 조사한 이정미(2017)의 연구에서,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구성체계, 구성방향 내용보다 교육의 실제에 해당되는 영역별 내용 이해와 교사지침 이해의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연구물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반 교사들은 표준보육과정 자연탐구 범주 중 ‘과학적 탐구하기’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엄경희, 2015), 2세 보육과정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교육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장선후, 2020). 박고은(2018)은 표준보육과정에 영아권리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영아보육과정의 실행 및 적용

영아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는 이미화 등(2013)의 연구에서 46.8%가 전적으로 반영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미화 등(2014) 연구결과로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을 수업에 충실히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91.8%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김지영(2014)의 연구에서도 유아반 교사가 표준보육과정 실행 수준으로서 4점 만점에 계획 및 편성 단계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평균 3.25, 운영에서는 평균 3.19, 평가에서는 평균 3.13인 것으로 나타나, 영아교사는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실제 보육활동을 계획, 운영, 평가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영아보육과정 이해 정도와 실천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지영과 김동례(2016) 연구에서 리커트식 4점 척도로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내용에 대한 인식에 대해 평균 3.34, 영역별 내용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평균 3.20으로 나타나 인식과 적용 실제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이해 수준이 적용 수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엄경희(2015) 연구에서도 표준보육과정 자연탐구 영역 중 과학적 탐구의 내용별 필요성 인식은 5점 척도에서 평균 4.5로 나타난 반면 수행에 대한 인식은 3.7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행 수준이 필요성 인식에 비해 낮았다. 표준보육과정의 영아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박고은(2018)의 연구에서도 실천수준과 인식수준 모두 생존권과 보호권리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동일하였으나, 전반적인 영아권리 실천정도는 중요도 인식정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아보육과정 영역별 실행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중점을 두는 영아반 보육내용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안전한 생활 습관에 주점을 두고 있었

다(이미화 등, 2013). 이미화 등(2014)의 연구에서는 표준보육과정 실행 시 어려움이 많았던 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소통영역, 자연탐구영역, 예술경험영역, 사회관계영역 순으로 선택하였고 기본생활영역과 신체운동영역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지영과 김동례(2016) 연구에서는 영역 내용 이해와 적용 실제 모두 ‘기본생활영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자연탐구영역’의 이해와 적용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김현주(2016)는 보육과정 실행 및 수준이 기본생활영역, 신체활동영역, 의사소통영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연탐구영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탐구의 경우 박라영(2014)의 연구에서는 과학활동은 대부분 대상에 대한 탐색활동 수준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역은 매일 이루어지는 실외활동 시간을 이용한 ‘주변 동식물에 관심 가지기’와 ‘자연을 탐색하기’라고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 자연탐구, 사회관계, 예술경험 영역은 대체로 2세보다 0~1세 활동에서 더 낮은 수행정도를 갖고 있었다(주현미, 2014). 이미화 등(2014)의 연구에서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표준보육과정 실행정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가에 대해 ‘영아는 집단 활동보다 개별적인 상호작용과 교수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평균 3.65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평가 결과를 수시로 반영하여 보육과정 운영계획을 수정, 보완하거나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이 평균 3.38로 가장 낮아, 영아교사들은 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고 결과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

국가수준 보육과정을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하고 실제 활동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 보급된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이미화 등(2013)은 2013년 조사 기준으로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을 보유한 어린이집은 78.2% 가량이었으며, 보유어린이집 중 93.2%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영아반 활동 준비 자료는 표준보육과정 어린이집 프로그램(69.6%), 월간전문지(14.7%), 인터넷(14.0%) 순으로 조사되었다(이미화 등, 2013). 김수연(2014)의 연구에서도 보육과정 계획 시 참고자료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60.5%)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친화활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정도를 조사한 남미경과 김인숙(2017)의 연구에서는 48.4%가 대체로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보육프로그램이 자연친화활동 수업 및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영아교사 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표준보육과정 과학적 탐구하기에 기초한 영아과학교육의 운영을 탐색한 박라영(2014)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과학 활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 영아보육프로그램 책자에 의존하고, 경력교사들은 기존에 자신이 해온 것을 참고해서 계획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계획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하나(2015)가 실시한 영아보육프로그램의 만2세 신체운동영역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결과, 보육프로그램의 신체영역 활동은 주로 연간 및 주간교육 계획을 구성하기 위해 참고(36.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정도에서는 주 1~2회 활용(52.5%), 주 3~4회 활용(24.9%)으로 나타났으며, 보육프로그램이 신체영역 활동의 이해 및 운영에 대체로 도

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아반 교사의 음악교육활동을 살펴본 김지혜(2020)도 연구대상의 86.2%가 영아보육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구체적인 교사용 지도서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박하나(2015)는 어린이집 일일교육계획안에 나타난 신체영역 활동은 대체로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범주에 집중되어, 이는 영아보육프로그램 신체영역 활동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영아교사들이 일일교육계획안에 보육프로그램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유소연(2018)도 어린이집 7개소의 연간 일일보육계획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학 교육에 있어 표준보육과정 만2세 보육프로그램에서 공간과 도형에 관심가지기가 가장 많은 활동을 차지하고 있고,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가지기는 가장 적은 활동수를 나타냄에 따라 일일보육계획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 현장에서 보육프로그램 활용이 두드러짐을 밝혔다.

2)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과 요구되는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연구주체로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분류된 연구물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모든 연구는 현장의 보육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한 조사연구 형태로 이루어져 영아보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각 연구물의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아보육과정 운영 시 장애요인에 해당하는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 및 영아보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과정의 적용 시 어려운 점으로 김수연(2014)의 연구에서는 연령별 보육내용의 모호함, 활동 자료와 교구의 부족, 교사의 전문지식 및 실행경험 부족, 표준보육과정 외에 자료들의 익숙함, 연수 및 교사교육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화 등(2013)의 연구에서는 보육프로그램 자료집 활용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그 사유로 영아 개인차로 인한 적용 어려움, 교재교구 준비 어려움, 내용숙지의 어려움 순으로 답변이 나타났다. 이미화 등 연구진이 2014년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23.6%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으나, 76.4%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애로사항의 이유로는 주제 전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제공하지 않아 어렵다, 주제나 각 영역에 따른 활동이 획일적이어서 확장하기 어렵다, 활동의 전개 방법이 복잡해서 실행하기 어렵다로 나타났다(이미화 등, 2014).

표준보육과정 운영 시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김지영(2014)의 연구에서 지원체계 요인, 표준보육과정 자체 요인, 환경 요인, 인적 요인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영아교사는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보육활동으로 적용하여 운영할 때 다양한 지원체계의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다. 김수연(2014)의 연구에서는 운영 상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원장의 지원 부족과 교사 대 원아 비율 과다로 나타났다. 또한 주현미(2014)의 연구에서는 영아교사들이 보육과정 운영 상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근무시간 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교수학습 자료 부족, 교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이미화 등(2014) 연구에서 영아교사들은

담당교사 급여 수준의 향상, 다양한 활동자료의 개발 및 보급, 보조인력 지원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미화 등(2013)은 국가수준에서 마련되는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 무상 보급과 함께 영아반 전수 교사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지혜(2020)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대부분이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경우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시간부족이 사유로 나타나 전문적인 교육기회 제공과 더불어 보조인력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영아교사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보육과정 교육 및 연수방법으로는 김수연(2014)의 연구결과, 현장사례발표와 강의 형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가장 도움 받고자 하는 교육 내용은 구체적 보육내용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 내용과 결과를 분석·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보육과정과 관련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전반적인 영아보육과정의 인식 및 실행·적용수준과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장애요인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영아보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2020년까지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2014년에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연구방법은 조사, 실험, 보육과정·보육프로그램 내용분석 등 양적연구에 크게 치중되어 이루어졌다. 연구주제로는 영아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 분석과 운영실태 관련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현장에서 실천되는 보육과정의 원활한 적용 및 활용에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주제 중심이 보육 현장으로의 영아보육과정 보급과 활용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보급된 다음 해인 2014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실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던 질적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연구주제의 경우 현장의 단순한 인식 조사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기관과 학급 특성을 고려한 보육과정 운영 등 구체적인 적용 실제와 운영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보육과정의 효율성 및 적절성에 대해 정책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중요하기에(OECD, 2012) 제4차 표준보육과정 시행('20.9.~)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가 요구되며, 영유아·놀이중심이 강조됨에 따라 교사 역할에 대한 재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 관련 연구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관심 증진과 영아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3-5세 누리과정 연구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2015년 3월까지 약 4년을 기간으로 총 102편(김민희, 2015), 2007년~2017년까지 약 11년을 기

간으로 총 283편(김미애, 나인선, 2018)이었으나, 2013년~2020년까지 약 8년간 이루어진 영아보육과정 관련 연구물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45편만이 분석 자료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마다 분석할 연구물을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상이한 것을 감안하여도 누리과정과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연구량 차이는 매우 크다.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운영실태 및 내실화 방안,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2020년 누리과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누리과정의 평가 및 성과 분석, 2020년 12월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를 실시한 반면 영아보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는 2014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유아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적은 이유는 기본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장 중요한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여전히 돌봄을 강조하는 형태의 보육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는 교육에 돌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유아를 보살피는 것(care)이 결국 보육과정(curriculum)이라고 인식하기도 하며(Bussey & Hill, 2017), 국내에서 이루어진 ‘영아’ 관련 연구물의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연구대상이 영아 발달 및 보육 자체이거나 영아와 가장 밀접한 성인인 부모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김영실, 신애선, 2014; 이승연 등, 2015). 또한 영아 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영아보육의 시대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는 것에서부터 영아보육과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연계된 영아보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정책 방향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 역시 누리과정 개편 계획을 앞두고,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0-2세 보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은 영아기를 거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유아와 구분되는 영아만의 발달적 특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영아기 보육의 질적 중요성과 함께 영아의 높은 어린이집 재원을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장과 학계 뿐 아니라 국가적 관심 확대가 더욱 요구되며, 사회정책 및 복지적 대응으로서도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연구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 영아보육과정의 인식 및 실행·적용 수준과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장애요인 및 지원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에서의 영아보육과정 인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행 및 적용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영아반 교사들이 제3차 표준보육과정의 존재는 인식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거나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14; 이정미, 2017; 주현미, 2014). 그러나 교사들은 대체로 영아보육과정을 보육에 전적으로 반영하고 충실히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김지영, 2014; 이미화 등, 2013; 이미화 등, 2014), 영아보육과정 이해 정도와 실천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이해·인식 수준보다 수행 수준이 낮았다(김지영, 김동례, 2016; 박고은, 2018; 엄경희, 2015). 구체적인 영아보육과정 영역별 실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영역, 자연탐구영역, 예술경험영역, 사회관계영역이 낮았고, 기본생활영역과 신체운동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아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김동례, 2016; 김현주, 2016; 이미화 등, 2014). 특히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낀 영역

은 대체로 2세보다 0~1세 활동에서 더 낮은 수행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주현미, 2014), 이는 어린이집에서의 영아보육은 연령 특성상 가르침 보다는 보살핌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영실, 신애선, 2014; 김지현, 양옥승, 2009). 그리고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사들은 표준보육과정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화 등, 2014). 종합하면 교사들의 보육과정 실천 정도는 이해 정도에 비해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들이 보육과정의 존재,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거나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낮고, 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고 결과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과정의 단순 보급 및 홍보보다 구체적인 보육과정 운영을 알아갈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의 교사연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내용 주제로는 영아교사들이 적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에 대한 내용이 더 효과적이겠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자료집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영아반 활동 계획과 준비 시 교사들은 주로 영아보육프로그램 책자를 활용하고 있었다(김수연, 2014; 김지혜, 2020; 박라영, 2014; 박하나, 2015; 이미화 등, 2013). 보육프로그램 내 활동 구성내용과 어린이집 영아반 일일계획안 내 활동을 비교·분석하였을 때 활동 내용이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박하나, 2015; 유소연, 2018)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활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영아보육과정뿐 아니라 누리과정에서도 교사용 지도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박창현, 이경화, 이민희, 2017), 그동안 국가수준 보육과정은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사는 영유아보육과정의 사용자이자 충실한 실행자가 되어왔기 때문이다(정선아, 2014). 이에 보육과정 수행 정도를 분석할 때에도 보육프로그램을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맞춰져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자율성이 강조되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 특성으로 좀 더 수준 높은 교사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개별 영유아 및 각 기관 특성에 따라 보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보육교사들은 영아보육과정 운영 시 장애요인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구조적으로는 근무시간 내 과중한 업무, 교사 대 원아 비율 과다가 나타났고, 지원내용으로는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있었다(김수연, 2014; 김지영, 2014; 주현미, 2014). 그리고 보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요구되는 지원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담당교사 급여 수준의 향상, 보조인력 지원 강화, 보육프로그램 전국 무상보급,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가 있었고, 지원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자료의 개발 및 보급, 구체적 보육내용과 현장사례발표 형태의 적절한 보육과정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14; 김지혜, 2020; 이미화 등, 2013; 이미화 등, 2014). OECD 20개 국가에서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검토한 내용 기반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재정 부족, 부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의 자격 및 보수 등과 같은 구조적 결함이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의 질과 실행에 있어 국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장애요인이었다(Bennett, 2005). 결국 이러한 구조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은 곧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OECD(2012)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하였고,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은 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규제(non-regulated) 시설에 있어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0-2세 영아가 재원 중인 곳은 민간어린이집이 39.8%, 가정어린이집이 32.7%로 총 72.5%가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실정(보건복지부, 2021)을 고려하면 영아보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현장 안착에 대한 관심은 더욱 요구되어 진다. 교사의 의식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보다 제도와 인프라를 바꾸는 것이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임을 고려할 때,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영아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 시행 이후 연구물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일부에 국한된 연구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영아보육과정에 대한 연구동향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준보육과정이 처음으로 고시된 2007년을 기점으로 분석 자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제4차 표준보육과정 시행에 따른 연구들의 동향 파악도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는 주로 특정 지역 등으로 한정된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단순 정리 및 분석한 것이므로, 현장에서의 영아보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국가 수준에서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미애, 나인선 (2018). 유아교육과정 및 누리과정 연구동향 분석: 2007년~2017년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연구**, 20(1), 57-82. doi:10.15409/riece.2018.20.1.57
- 김민희 (2015). 누리과정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149-167. doi:10.14698/jkce.2015.11.149
- 김수연 (2014). 영아반 보육교사의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운영실태.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실, 신애선 (2014). 영아 관련 연구동향 분석: 2006년~2012년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86, 79-105.
- 김지영 (2014). 영아교사의 표준보육과정의 실행 수준과 장애 요인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810-817. doi:10.5392/JKCA.2014.14.10.810
- 김지영, 김동례 (2016).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과 적용 실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5), 318-326. doi:10.5392/JKCA.2016.16.05.318
- 김지현, 양옥승 (2009). 어린이집에서 영아 보육이 지니는 의미: 보살핌과 가르침. **유아교육연구**, 29(2), 163-189. doi:10.18023/kjece.2009.29.2.008
- 김지혜 (2020). 영아반 교사의 음악교육활동 운영실태와 ‘영아보육프로그램’의 음악교육활동에

- 대한 활용 어려움과 개선방안.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16). 어린이집 영아반 및 유아반 교사의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편성·운영 실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8), 389-396. doi:10.5762/KAIS.2016.17.8.389
- 남미경, 김인숙 (2017).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자연친화활동에 대한 동향분석과 보육교사의 인식 조사. **생태유아교육연구**, 16(3), 173-193.
- 박고은 (2018). 표준보육과정의 영아권리에 대한 내용분석과 보육교사의 인식.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라영 (2014). 표준보육과정 과학적 탐구하기를 기초로 한 영아과학교육에 대한 교사의 운영 및 요구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하나 (2015).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 보육 프로그램의 만2세 신체영역 활동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현, 이경화, 이민희 (2017).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 성격에 부응하는 누리과정 운영개선 방안**(연구보고 2017-18).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2&manage_idx=31&board_idx=28399에서 2021년 4월 6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7. 12).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3320에서 2021년 5월 18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보육통계 2020년 12월 말 기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에서 2021년 5월 18일 인출
- 엄경희 (2015). 표준보육과정 과학적 탐구에 대한 영아반 교사의 필요성 인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가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소연 (2018). 만 2세 표준보육과정에 나타난 수학교육 내용분석: 어린이집 교육계획안을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주연, 이승연 (2015). 영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전문적 정체성의 혼란과 극복의 힘. **한국교원교육연구**, 32(2), 257-288. doi:10.24211/tjkte.2015.32.2.257
- 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 (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연구보고 2013-1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1&manage_idx=30&board_idx=28321에서 2021년 4월 6일 인출
- 이미화, 정주영, 엄지원 (2014).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만 0-2세 영아반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육아정책연구**, 8(2), 111-131.
- 이승연, 권수현, 권연정, 김언경, 나영이, 유주연 등 (2015). 국내외 ‘영아’ 관련 연구물의 최근 동향 분석: 2000년~2013년 발간 논문을 대상으로. **교육과학연구**, 46(3), 91-117. doi:10.15854/jes.2015.09.46.3.91
- 이영환, 서현아, 윤정진 (2013). 국가수준 보육과정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309-342.
- 이정미 (2017). 0-2세반 교사의 표준보육과정 이해도와 교수효능감의 관계. 서울신학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최효미, 이재희, 이윤진 등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11-1352000-000961-1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4&manage_idx=33&board_idx=28628에서 2021년 4월 6일 인출
- 장상옥 (2017).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분석 연구의 동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2(2), 1-29. doi:10.20437/KOAECE22-2-01
- 장선후 (2020). 유아역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운영실태: 만 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아 (2014).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에 관한 연구: OECD 6개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1), 147-164. doi:10.14698/jkce.2014.10.1.147
- 정정희, 이효림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누리과정 관련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4), 389-406. doi:10.20437/KOAECE22-4-17
- 주현미 (2014).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보육교사 인식 및 운영 실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목화, 이미영, 나종혜 (2011). 영아반 보육계획안 분석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897-915. doi:10.5934/KJHE.2011.20.5.897
- Bussey, K., & Hill, D. (2017). Care as curriculum: investigating teachers' views on the learning in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187(1), 128-137. doi:10.1080/03004430.2016.1152963
- Dodge, D. T. (1995). The importance of curriculum in achieving quality child day care programs. *Child Welfare*, 74(6), 1171-1188.
- Bennett, J. (2005). Curriculum issues in national policy-making.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13(2), 5-23. doi:10.1080/13502930585209641
- OECD (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신동주, 장혜진, 이경옥 옮김).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books.google.co.kr/books/about/Starting_Strong_III.html?id=dm0zUy3ie2AC&printsec=frontcover&source=kp_read_button&redir_esc=y#v=onepage&q&f=false에서 2021년 5월 18일 인출

논문투고: 21.04.07

수정원고접수: 21.05.20

최종게재결정: 21.06.07